

# 振興會소식

## 金玩熙 會長, EC 委員會議 참석

本會 金玩熙 會長은 지난 6월 11일 EC 歐洲共同體 덤핑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브르셀에 도착했다. 이는 유럽 소비자 전자제품제조협회(EACEM)가 지난 2월 5일자 EC 판보를 통해 韓國産 黑白TV를 덤핑 혐의로 제소한 데 대해, EC 執行委員 및 EC 역내 주요 업체들과 예비접촉을 갖고 변호사를 통해 韓國측 입장을 해명키 위한 것이다.

유럽에 輸出되는 韓國産 흑백 TV는 EACEM에 의해 덤핑 혐의로 제소되어 12일 벨기에 수도 브르셀에서 歐洲共同體 덤핑위원회가 이를 심사한다.

이 會議 결과는 黑白TV의 EC 지역 輸出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政府는 異議를 제기,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韓國측은 韓國 黑白TV産業은 輸出위주産業이고 EACEM의 제시가격이 부정확하며 EC역내 지역을 제외한 제3국에 대하여 EC 輸出價格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는 예를 들어, 덤핑 혐의의 제소가 부당함을 주장하기로 하고 本會의 金會長을 파견키로 한 것이다.

金會長은 또 英國電子産業協議會와 黑白TV 쿼터에 관한 예비회담을 갖고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46차 國際電氣電子技術委員會 總會에도 참가한 후 이달 말 귀국할 예정이다.

## □ 夏季 CES, 14개 業体 참가 盛了

81년도 夏季 CES 電子展이 지난 5월 31일부터 4일간 美國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플레이스, 맥코믹 인, 픽 콩그레스의 3개 展示場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쇼는 우리나라 電子業體에서 本會가 주관한 공동 부스에 天一社, 大進音響, 寶高産業, 三都電子, 興倉物産, 鮮京매그네틱스, 高麗電子産業, 韓國北斗音響등 8個社가 출품했고, 金星社, 三星電子, 大韓電線, 東原電子, 오림포스電子, 大宇電子 등 6個社가 단독으로 출품했다.

主催側인 美國 電子工業會(EIA)에서는 쇼 기간 중 당초 예상했던 6만명을 훨씬 능가하는 인파가 몰렸다고 추산했다.

우리나라 제품중에서는 컬러TV, VTR, 콰비TV와 콰포넌트 시스템, 스피커 시스템, 미니 카세트 플레이어, 헤드폰, 카스테레오 등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本會에서는 實務 幹事로서 金庚辰 貿易振興課長이 참가하여 出品業體의 展示 및 商談 활동을 지원하고, 美 市場 정보, 각국의 신제품 동향을 살펴보고 귀국했다.

## □ 外國人 投資認可 說明會 개최

本會 國際部에서는 지난 6월 5일 貿易會館 12층 강당에서 外國人 投資認可 세부지침(案)에 대한 說明會를 개최하였다.

이날의 說明會는 朴庠秀 商工部 電子部品課長이 설명에 나섰는데 약 70여 업체의 代表 및 任員이 참석하였다. 이 說明會는 外國人 投資誘致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開放政策의 계속적 추진, 적극적 유치활동 전개, 投資先의 다변화, 行政 節次 간소화 등의 基本施策에 발맞추어 실시된 것이다.

특히 電子産業에 관한 외국인 投資認可 세부지침을 Positive System化하여 고시하고 租稅 減免 혜택을 자동화시키며 각종 弘報 유인물을 배포하고 투자유치 使節團을 파견(歐洲지역 6월 중, 亞洲지역 7월 중, 美洲 지역 9월 중)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投資先이 美國에 20%, 日本에 53% 등

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를 지양하고 歐洲지역 또는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投資誘致를 확대하여 投資先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외국인 投資의 우선 순위는 ① 국내 産業政策 및 比較優位에 입각한 機械, 電子工業 등 重化學工業, ② 산업 연관 효과가 높은 사업, ③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업, ④ 기술집약적인 中小企業型 사업, ⑤ 내국인 투자가 부진하지만 산업개발 전략상 국내유치 발전이 적극 요청되는 사업, ⑥ 수출 증대 또는 수입대체 산업으로 國際収支 改善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 ⑦ 投資先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이다.

政府는 경제 여건등의 변동에 따라 외국인 투자 허용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이를 수시로 고시하며 8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인 투자 허용 사업에 대해 Negative System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 □ 慶州서 品質管理 教育 開催

本會 振興部에서는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2박 3일간 慶州 유스호스텔에서 제3차 品質管理 教育을 개최할 예정이다. 電子産業界의 효과적인 經營管理와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개최되는 이번 品質管理 教育은 電子業界의 최고 經營者 및 幹部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참가할 수 있는 人員은 80명 정도에 한한다.

특히 이번에는 그 동안 서울에서만 개최해 왔던 教育을 地方으로 옮김으로써 業體間의 유대 강화와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教育에서 제공되는 資料는 電氣用品 業體의 實態를 分析한 것으로서 최근 석유과동 등으로 인한 經濟의 불황을 극복하고 安定成長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電氣·電子業界의 市場情報에 도움이 될 것이다.

本教育의 강사진은 工科大学의 교수와 電子産業 관련 연구소 및 경제 분야의 研究所의 간부 등으로 짜여져 있고 참가한 同種業界의 간담회도 갖을 예정이다.

本教育의 접수 및 問議處는 本會 振興課(778 - 0913~8)이며 1인당 참가 회비는 11만원이다. 教育 예정은 다음 表와 같다.

### 교육시간 예정표

교육 내용	시간	강사
1. 사내 품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2	아주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교수 김원중
2. 해외시장 개척과 제품 판매전략(해외시장의 구조와 현황을 중심으로)	2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경영학박사 조관수
3. 세무신고의 절차 및 방법 (특별소비세 신고 및 부당세액금 이의신청방법)	2	한선합동공인회계사 사무소 세무사 이한희
4. 특허관계(생산제품보호 의장실용 신안)	2	진금섭 특허사무소 변리사 박사 진금섭
5. 노사 협조와 기업운영	2	한국경영연구소 이사장 최경진
6. 전기용품 안전대책(220볼트 승압 사업을 중심으로)	2	한국기계연구소 전기부장 선우 영권
7. 전기용품 사후 관리 불량 분석	2	국립공업시험원 전기과장 김관중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에 관한 지침설명	2	공업진흥청 기전관리과장 김항래
9. 참가자 동종업계 간담회	2	생산품목별업체간담회

### □ 本會 職員 모내기 지원

本會에서는 지난 6월 3일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팔당리에서 농촌 일손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모내기 봉사에 참여하였다. 매년 실시되어 온 이 농촌 일손돕기 행사는, 올해에는 서정세신 경제인단체 제3그룹 소속 임직원과 本會 職員 11명등 100여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동봉사단은 와부면 팔당리의 논 100여평에 모내기를 실시하였다.